

전력수요관리를 위한 축냉설비와 고효율기기 지원제도

이 명 호

한국전력공사 수요관리실

The incentive programs of cool storage systems & energy efficient equipments for DSM

Myeong-Ho Lee

DSM Planning Team of Demand-side Management Office, Korea Electric Power Corporation
Seoul 135-791, Korea

요 약

한전은 전기를 보다 값싸고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해 공급측면에서는 최적 전원구성, 수요측면에서는 합리적인 전력수요관리를 위한 다양한 제도적 장치를 강구해오고 있다. 특히 전력수요관리는 고유가와 온실가스 문제가 크게 대두된 작금의 상황에서는 그 중요성이 날로 크게 인식되어 가고 있다.

전력수요관리란 미래에 예측되는 수요를 보다 바람직한 방향으로 개선하고자 시행하는 제반활동을 의미한다. 다시 말하면 DSM(Demand Side Management)은 고객의 전기사용 패턴을 변화시켜 전력수요를 효율적으로 관리함으로써 전력수급 안정과 전기공급의 경제성을 제고하고 전기사용을 합리적으로 유도하는 것이다. 전력수요관리 유형은 크게 부하관리와 효율향상의 두가지로 구분할 수 있다. 부하관리는 전력피크를 억제하고 기저부하를 조성하여 부하평준화를 도모할 목적으로 하계휴가보수조정지원제도, 자율절전지원제도, 축냉식냉방설비보급지원제도, 원격제어에어컨보급지원제도, 직접부하제어지원제도, 비상절전지원제도 등을 운영하고 있다. 또한, 효율향상은 전기이용효율향상으로 피크억제 및 에너지절감도모할 목적으로 고효율조명기기, 인버터, 전동기, 자동판매기 보급지원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축냉식 냉방설비를 설치하는 고객에게는 Peak 감소전력에 따라 설치비의 일부를 무상 지원하고 있으며, 설비설계사무소에 대해서는 설치지원금의 5%를 설계장려금으로 지급하고 있으며, 정부가 인정하는 고효율조명기기, 인버터 및 전동기를 설치 또는 교체한 고객에 대해서는 절감전력에 따라 설치지원금과 보급장려금을 지원하고 있다.

'05년도에 시범사업으로 채택되어 시행예정인 사업으로는 고효율변압기와 최대전력관리장치 보급지원제도가 있다.

끝으로 한전에서는 한전의 수요관리 전문인력(에너지효율 컨설턴트)이 건축물의 신·개축시 에너지 절약형 건축을 유도하기 위해 벌이는 “건축물에너지효율컨설팅” 제도를 신설하여 지난 5월부터 운영하고 있으며, 설계사무소의 많은 협조를 기대하고 있다.

전력수요관리를 위해 범국가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축냉설비와 고효율기기 보급은 이에 참여하는 고객은 물론 국가와 전력회사 모두에게 이익이 되는 Win-Win의 경제전략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런 면에서 범국민적인 참여와 협조가 더욱 절실하다고 하겠다.